유나 크레스트

목차

- 【프롤로그 : 천재 소년의 강초 처형 선고]
- 【제1장: 가랑이와 항문 개발의 시동】
- 【제2장:감도 10,00배와 글리세린 관장에 의한 편의 책임】
- 【제3장:24시간∞강제 똥배변의 형】
- 【제4장:도서실에서의 강초 애무와 창가의 공개 굴복】
- 【제5장:함정 트랩의 봉에 항문으로부터 빠지다】
- 【종장:보고 없이는 할 수 없는, 완성된 항문 완구】

【프롤로그:천재 소년에게 강초 처형 선고】

공중마법학원 다이아몬드 아카데미의 아침은, 인공적인 매직 라이트의 빛에 의해 빛난다.
긴 복도를크레스트는 무겁게 가라앉는 자신의 위의 둘레를, 갈색의 케이프 위에서 누르면서 걷고 있었다.
학원이 시작된 이래의 천재와 놀라게 되는 그의 명석한 두뇌도, 오늘 아침만은 사고를 거절해, 득체의 모르는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

어제, 정면 현관에 있는 게시판에 붙여진「실기 연습·대인전 토너먼트표」의 대전 예고는 순식간에 전교 학생이 아는 곳이 되었다.
그의 상대는 학원에서 가장 두려워하고 그 가혹하고 잔혹한 전투 스타일에 의해 (일종의 층으로부터) 열광적인 인기를 먼지 소녀윤아이다.
토너먼트 표에 늘어선 자신의 이름과 그 옆에 새겨진 그녀의 이름의 대비를 기억할 때마다, 크레스트의 얇은 허리는 공포로 작게 떨었다.
윤아는 지난 며칠 만에 늘어선 굴강한 남학생들을 잇달아 '재기불능'으로 몰아넣었다.
그것도 단순한 힘이 아니다.
철저한 관절기 - 특히 무자비한가랑이에 의해 자유를 빼앗고, 내전근이 비명을 지르고 마음이 부러지고, 신체가 완전히 탈력한 그 순간에 발해지는 용서 없는 필살의'강초'。
희생된 남자들은 한결같이 하얀 눈을 벗고 무릎에서 무너지고, 남성기에 닿지 않고 항문에 1점 공격만으로 분수처럼 사정해 완성했다고 한다.
그 광경은「학원의 지옥 그림」으로서 그의 귀에도 싫다는 정도 들어 있다.
지금 크레스트가 입고 있는 타이트한 검은 반바지 아래에서, 괄약근이 자위의 본능으로부터 쿵과 굳게 계약했다.

「아, 미 붙였다. 쿠레▪스▪토군♪」

뒤에서 심장을 직접 잡을 수 있는 밝고 잔인한 목소리가 울린다.
「... ...윤아」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허리까지 닿는 깊은 남색의 트윈 테일을 복숭아색의 리본으로 흔들어, 불적한 미소를 띄운 윤아가 서 있었다.
그녀는 먹이를 품정하도록 그의 붉은 머리카락과 고양이 귀를 손가락 끝으로 만지면서 근거리까지 얼굴을 다가온다.
복숭아 색의 블라우스에서 들여다 보는 흰색 어깨 입. 달콤하고 그것으로 포식자와 같은 위압을 품은 향기가 감돌고 있었다.
"다음주의 경기 기대구나. 네 두뇌가 내 '합리적인 공략'에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말하고 싶지만 나는 질 생각은 없으니까. 다른 남자와 같다고 생각하지 말고」

학원 제일의 천재라고 말해진 프라이드인가, 크레스트는 적어도의 저항과, 확실히 윤아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황색의 시선이 그의 가는 허리 주위와 수치에 떨리는 허벅지를 핥도록 움직인다.
그 시선이 지나는 것만으로 크레스트의 피부에는 협설이 달리고, 꼬리는 도망치기를 잃은 것처럼 격렬하게 흔들렸다.
「아하. 그렇게 떨지 말아줘. 괜찮아...
「.....」
"지는 남자들은 모두, 마지막은 굉장히 좋은 얼굴 했어? 내 강초로 항문에서 쿵! 라고 관철된 순간 모두 '히기!'라고 말해, 정액을 두바도바 전부 내버려. 크레스트는 어떨까?

「뭐...

「후후」
크레스트의 뇌리에, 스스로가 연습장에서 4개씩 기어들어져 윤아의 손가락에 그 항문을 유린되는 최악의 이미지가 넘어져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1주일. 이 '지옥의 선고'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순식간이었다.

【제1장: 가랑이와 항문 개발의 시동】

방과후 조용히 돌아온 연습장에는 거친 호흡 소리만이 울리고 있었다.
'학원의 두뇌'로 접어든 크레스트는 이제 바닥에 뛰어오르고 땀을 흘리며 눈앞에 펼쳐지는 잔혹한 광경을 필사적으로 직시하려고 했다.
주위에는 이미 윤아에 의해 철저히 '공략'되어 존엄을 잃고 누워 있는 남학생들의 무고한 모습이 있다.
그들은 혼자 남아 있지 않고 강렬한 가랑이에 의해 그 줄기는 부티 잘리고 완전히 가랑이가 찢어져 있었다.

그리고 바지의 항문부는 윤아의 손가락의 형태에 박혀, 전은 백탁한 액체로 무참하게 더러워져, 그 얼굴은 극한의 수치와 미친 쾌감이 섞인,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허탈한 표정으로 굳어지고 있었다.

"이봐 크레스트. 마지막은 너뿐이야?"

윤아가 근심하게, 순진하고 잔혹한 미소를 띄운다.
그녀는 자신의 유연한 육체를 감싸는 애용블라우스을 약간 뒤집으면서 포식자의 발걸음으로 천천히 틈을 채워 온다.
그 황색의 눈동자에는 지성파인 크레스트를 철저하게 굴복시켜 그 비부——타이트한 팬츠에 지켜진, 아직 미지의엉덩이 구멍을 무자비하게 폭로하고 싶다는 가학심이 어두운 불꽃이 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크레스트의 현명한 머리라면 이미 알고 있잖아? 저항해도 낭비. 어쨌든 낭비.강초에서 개발끝내지 마라. "

윤아가 날카롭게 밟는다!
그녀의 목적은 명확하다.
크레스트의 화려한 몸을 지면에 얹어, 그 가는 다리를 강제로 좌우로 나누는 것.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은 가랑이의 줄무늬가 비명을 지른다.지옥의 가랑이의 서곡에 다름없다.

윤아가 낮고 날카로운 태클을 걸어 왔다!
먹이의 기동력을 빼앗기 위한 합리적이고 빠른 일격.
그녀의 양손이 크레스트의 얇은 허리를 꽉 잡아 그대로 차가운 바닥에 밀어 넣으려고 압력을 가한다!

크레스트는 공포로 경직되는 다리를 필사적으로 질타하고, 학원에서 두드려진 '생존을 위한 최적해'를 열을 띤 뇌내에서 순식간에 튀긴다.
윤아의 돌진은 날카롭고 무겁다.
'제대로 그 압력을 받으면 크레스트의 몸집이 작은 체구는 한참 없이 분쇄될 것이다.

「... ... 시키는 것인가...

수치심에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면서, 크레스트는 굳이 중심을 깊게 떨어뜨렸다.
돌진해 오는 윤아의 기세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정면에서 받아들이는 척을 한다.
그를 상징한다진홍 고양이 귀하지만 극도의 긴장과 흥분으로 핀과 서서, 경계심도 드러나고 조금씩 떨고 있다.
윤아가 크레스트의 허리에 억지로 손을 걸려고 한 그 순간, 크레스트는 그녀의 옷깃을 잡고 스스로 앙향으로 쓰러졌다.

「엣……!?」

놀랍게도 옥의 눈을 바라보는 윤아.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크레스트는 자신의 오른발을 그녀의 하복부에 단단히 대고, 등의

회전 운동을 이용하여 그녀의 무게를 머리 위로 선명하게 내던졌다.
크레스트의 숨겨진 구슬, 상대의 돌진력을 역이용한 필살의 파도 던지다. 최고의 타이밍에 굳어졌다!

「큭...

하지만, 던져진 윤아는 공중에서 훌륭하게 몸을 휘두르고, 고양이와 같은 부드러움으로 착지한다.
그러나 크레스트도 또 그녀에게 '다리를 잡고 가랑이를 깨뜨리지 않는다'는 집념을 폭발시키고 있었다.
던진 순간의 관성을 이용하여 빠르게 후방으로 굴러 다시 윤아와의 거리를 확보한다.
격렬한 움직임에 맞는 그의 얇은꼬리하지만 무치처럼 하늘을 치고 본능적인 방어 본능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헤에...

윤아는 착지의 충격으로 흐트러진 남색의 머리카락을 솟아오르고, 불적한 혹은 기쁨에 젖은 웃음을 띄운다.
그녀의 블라우스의 밑단에서 들여다 보는 흰 복부가 흥분에 의한 격렬한 호흡으로 물결치고 있다.

"그래도 크레스트. 건 던지는 것은...

윤아의 시선이 방위 본능으로 떨리는 크레스트의 다리 그리고 가드를 굳히고 있는 가랑이에 끈적거리도록 부어진다.
크레스트의 심장은 조종과 같이 가슴을 찢어 버리기만 한다.
지금의 전력의 던지기로 스태미나를 크게 소모했다.
대하는 윤아는 오히려 먹이를 몰아넣은 흥분에 의해, 그 **翠**의 눈동자에 한층 더 활력을 갖고 있다.

"다음은 그 '가랑이와 엉덩이를 절대로 사수한다는 마음'을 차분히 해체해 준다...엉덩이 구멍하지만 절망으로 히쿠히쿠와 열릴 때까지」

윤아가 다시 자세를 낮춘다.
이번은 정면에서의 태클이 아니다.
크레스트의 발목을, 손끝을, 집요하게 노리는 뱀과 같은 소름 끼치는 움직임으로, 차분히 몰려 온다!

크레스트는 폐를 굽는 것 같은 거친 호흡을 정돈하면서, 학원의 이념이다효율적인 리소스 관리을 주문처럼 뇌리에 새긴다.
무암하게 움직이면 피폐한 스태미나를 낭비해, 윤아가 생각하는 지팡이다.
그는 굳이 자신으로부터 움직이지 않고, 낯선 가학심을 품고 낮게 짓는 윤아의 거동을, 먹어들인다고 응시했다.
일순간의 틈, 그 힘을 이용해 다시 상황을 타개할 수밖에 없다.

「...

윤아가 땅을 걷어차었다.
그녀는 크레스트의 다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굉장한 속도로 사이드로 돌아간다.
크레스트의 시야에서 사라지려는 그 순간, 그녀의 하얗고 얇은 손가락 끝이, 겨냥한 것처럼 크레스트의 무릎 뒤로 뻗어졌다.

「틈 있어…

「왓!?」

크레스트의 동요를 바라보는 것처럼 윤아의 공격에는 교묘한 페인트가 섞여 있었다.
크레스트는 그녀의 움직임에 맞추어 필사적으로 몸을 두려고 했지만, 윤아의 손가락 끝이 크레스트의 제복——파란 케이프의 옷자락에 비정에 걸린다.

「붙잡았다!」

「뭐!?」

윤아는 크레스트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진 순간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먹이의 배후에 전광석화의 속도로 돌아다니고, 억지로 그 화려한 신체를 차가운 지면으로 밀어 넘어뜨린다!

도사**! !**

「으아…
바닥에 두드려진 충격으로, 크레스트의 폐에서 공기가 강제적으로 누출된다.
희미하게 윤아는 저항하는 크레스트의 등에 말타기가 되어, 스스로의 양다리를 크레스트의 허벅지 안쪽에 쐐기처럼 인터럽트시켜, 필살의 가랑이 비난을 강렬하게까지 다했다.

「히기 좋은 좋은!?? 마, 가랑이가 아아아!?!?」

「파도 던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아. 크레스트의 계산, 내가 모두 덮어써 준다….

윤아는 크레스트의 가는 양발목을 바위 같은 악력으로 꽉 잡았다.
그대로 좌우로, 비정한 역임에, 그러나 해부학적인 최적해를 가지고, 확실하고 무자비하게 펼치기 시작한다.

미시미시**… !**

「아…

크레스트의 고관절에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신경을 직접 굽는 것 같은 날카로운 통증이 달린다.
윤아는 고통에 몸을 뒤덮는 크레스트의 등 위에 앉히고, 차분히 장난감을 취급하도록 그의 가랑이를 찢어 간다.
너무 심한 통증에 크레스트고양이 귀가 힘없이 엎드려 공포를 상징하도록 격렬하게 경련했다.

부찌 ......!

"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결국 내전근이 마침내끈이 찢어지는 소리울리고 찢어졌다.
수치심으로 가득했던 크레스트의 생각은 너무 심한 통증과 무방비에 노출되어 자신의항문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하얗게 물들기 시작했다.

「뭐, 가랑이가!? 나의 가랑이가 아!??」

「아하하. 좋은 목소리! 크레스트의 신체, 의외로 부드럽네요.

윤아는 즐거움에 한층 더 잔인한 힘을 담아 크레스트의 다리를 좌우에 「V자」의 형태로 고정했다.
크레스트는 더 이상 자신의 가랑이가 완전히 무방비한 상태로 부끄러운엉덩이 구멍까지가 윤아의 翠의 눈동자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통증과 굴욕 속에서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꼬리는 절망적으로 바닥을 두드리고 도망가 없는 현실을 거절하도록 좌우로 내려왔다.

한계까지 가랑이를 다한 크레스트의 귓가에서 유나는 달콤하고 잔인한 뜨거운 한숨을 불어 넣는다.

「이봐, 크레스트? 내 가랑이, 어때? 가랑이, 굉장히 아프겠지. 자, 엉덩이의 힘이 빠져 있어…

그녀의 하얗고 교활한 양손의 검지가, 천천히 표시를 맺도록(듯이) 짜여졌다.
그리고 수치심에 떨리는 크레스트의 가장 무방비하고 가장 예민한항문로 목표를 정한다.

크레스트는 가랑이의 격통에 얼굴을 왜곡, 지땀을 폭포처럼 흘리면서도, 앞의 '논리적 사고'를 극한까지 풀 회전시켰다.
지금 이대로 가랑이를 찢어항문을 윤아의 손가락으로 유린되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저항할 수 없는 영혼까지 파괴되는 굴욕적인 패배만.
그는 떨리는 썩은 목소리로 윤아의 '합리주의'와 '사디스틱한 가학심'을 동시에 간질이 하는 악마적인 거래를 필사적으로 가져왔다.

「… … 뭐, 기다려… … 윤아…

크레스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절규의 여운으로 끊어져 끊어졌다.
고관절에서「미시미시...라고 뼈와 힘줄이 떠오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끊임없이 경기장에 울리고 있다.

「라고, 거래… … 어! 실전이라면 절대 사용하는 히마가 없는 감도 100배의 마법, 엉덩이에의 자극을 100배로 하는 마법을 나에게 걸어도 좋으니까… … 네가 원하는 포즈를…

그 죽음에 미친 제안을 들은 순간, 윤아의 손가락의 움직임이 멈췄다.

"와, 나쁘지 않아. 1분이라면 100배, 2분이라면 200배. 1분당 100배 더 올라가라!

「헤에…

그녀의 翠의 눈동자에 호기심과 계산된 학학적인 유희가 섞인 요염한 빛이 담긴다.

「… … 1분당 100배의 상승? 상한 없음…

윤아는 크레스트의 얇은 허리를 더욱 강하게 뻗어 그 귓가에 뜨거운 한숨과 함께 속삭였다.

"좋아. 탔다! 크레스트의 그 필사적인 절망 얼굴, 더 깊은 곳에서 물들여주고 싶네….『**3**분간』로 가자. 자극 배율은 계약대로**300**배. 내가 쓰러지지 않으면 크레스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귀엽다.엉덩이 구멍를 펼치고, 내 손가락을 기다려 주는 거지? "

윤아는 천천히 승리를 확신한 여유로 구속을 풀고 크레스트를 바닥으로 굴렸다.
그녀는 여유가 듬뿍 아무런 자세도 취하지 않은 채, 크레스트의 눈앞에서 양손을 펼쳐서 다한다.
복숭아색의 블라우스에서 들여다보는 데콜테가 승리의 우월감에 떨고 있다.

「자, 3분간의 카운트다운, 스타트야. …

크레스트의 흐린 눈동자에 일순간만, 날카로운「합리성」의 빛이 머물렀다.

".....3분.....알았다.....이게 내가『최적해』다"

크레스트는 비명을 지르는 고관절을 필사적으로 꾸짖고 기어들게 하여 일어난다.
윤아는 여유가 듬뿍 어떤 고등 마도에 의한 공격이 올 것인가와 가슴을 튕겨 무방비에 그 몸을 노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크레스트가 취한 행동은「공격」이 아니었다.
크레스트는 전마력을 자신의 가는 다리에 집중시키면, 폭발적인 기세로 연습장의 출구로 등을 돌리고,전력이 되고 척 상관없이 탈토처럼 도망친 것이다**!**

「엣……? 아, 조금! 크레스트!?」

뒤에서 어리석은 윤아의 경악의 목소리가 울린다.

이길 수 없다고 알면 도망칠 수밖에 없다. 모두 앞에서 강초에서 오징어 된다니 참을 수 없다.

「… … 후후, 아하하하하! 역시 크레스트는 최고야!

도망치려고 하는 크레스트의 배후에, 굉장한 풍압이 다가온다.
윤아는「공격(반격)」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도망치는 먹이를 전력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을 뿐이다.

전위 기사로서의 압도적인 각력은 만신 창두의 크레스트를 놓칠 정도로 달콤하지 않았다.

가시**!!**

「히…… **!?!?** 아니야…

연습장 출구까지 앞으로 몇 미터라는 곳에서 크레스트의 얇은 발목을 윤아의 강인한 손이 잡았다.
그대로 무자비한 역임으로 되돌려져 크레스트는 다시 바닥에 두드려진다.

「네 3분 경과…. … 1발도 공격하지 않았어?

윤아가 도망치려고 한 크레스트의 등에, 다시 말 타기가 된다.
그 얼굴은 아까보다 훨씬 깊고 어두운 가학의 기쁨에 젖어 있었다.

“약속대로『자극 **300**배의 마법』걸어준다. 그럼… 너의항문하지만 300배의 쾌감으로 어떻게 되어 버릴지 기대해」

윤아의 손이 크레스트의 떨림엉덩이 구멍로 뻗어.
도주에 실패한 절망과 앞으로 찾아오는 '300배'라는 광기의 공포에 크레스트의 사고는 완전히 멈췄다.

「어, 1000배로 좋으니까! 벌써 놓치고…

「아하하하! 크레스트, 너는 정말로…

윤아는 크레스트의 등 위에서 배를 안고 폭소했다.
'학원의 두뇌'라고까지 구세를 받은 자랑스러운 소년이 자존심과 논리도 모두 버리고 '1000배'라는 생물의 한계를 넘은 배율을 스스로 제시하고 그의고양이 귀을 격렬하게 찌르면서 눈물을 흘려 생명을 한다.
그 굴욕으로 가득 차있는 모습은 포식자인 그녀에게 피가 떨어지는 스테이크보다 감미로운 치료였다.

"좋아, 그 거래를 탔다! 1000배야? 약속이야? 대신 이번에는 먼저 1000배 마법을 걸니까?"

윤아는 빠칫 계속 손가락을 울린다.

「응……?」

특히 뭔가 바뀐 모습은 없다.

"안심해도 돼. 무조건 감각 1000배는 민감해서 너무 민감해서 달릴 수 없게 되니까.
이것은 지연계에서 강초의 순간에 효과가 되도록 했어….

윤아는 일부러 답답하게 손을 떼고, 크레스트의 얇은 허리로부터 일어섰다.
일순간의 해방.

하지만 그것이 한층 더 절망에의 입구인 것에, 공포로 사고의 둔한 크레스트는 아직 눈치채지 못했다.
가랑이의 데미지로 다리는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크레스트는 떨리는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기어 1보, 또 1보와 출구로의 거리를 줄이려고 발을 긁는다.
무고하게 끌어당기는꼬리하지만 그의 잃어버린 존엄성을 상징했다.

(도망치지 않으면……. 또 잡히면……1000배…

4켠 기어가게 되어, 무사히 그래도 필사적으로 포복하는 크레스트.
그 결과, 그의 뒤에서 가장 무방비하고 가장 예민한엉덩이 구멍가 윤아의 시선에 대해 더 이상 없이 “돌출된” 상태가 되어 버렸다.
윤아는 그것을 내려다보고 먹이를 잡기 직전의 짐승과 같은 날카로운 환희를 그 언덕의 눈동자에 담았다.

「… … 뭐라고.『상대에게 조금이라도 스키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필살의 강초를 찌른다』. 이것이 나의 최적해이야, 크레스트! "

도망치려고 네번 기어가게 되어, 무방비에 돌출된 크레스트의 엉덩이. 윤아는 도주를 허락하는 커녕,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양손의 집게손가락을 단단히 짜고, 전마력을 손가락 끝에 집중시킨다.

「어떻게…『강초! ! 』」

즈보! !

"오후어! ? ? ! ? "

크레스트는 처음에 자신의 항문이 폭발했는지 생각했다. 자연과 '후후' 등이라는 목소리가 좁혀지도록 목에서 마음대로 나왔다.
뜨거운 뜨거운 손가락이 항문에서 단번에 근본까지 들어갔다. 태어나 처음으로 항문에 속옷과 손가락을 찌르는 크레스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곧 알 수 없었다.
즈봇 등이라는 둔한 관통음과 함께 윤아의 손가락 끝이 크레스트 엉덩이의 중앙에서 엉덩이, 항문과 직격한 것이다. 충격은 엉덩이를 뚫고 배의 안쪽까지 단번에 달려갔다.
1000 배로 튀어 나온 감도에 의해, 본래라면 통증이어야 할 충격이, 뇌가 구워질 정도의미친 쾌감가는。

「아, 하지만……아……아…

크레스트는 하얀 눈을 벗기고, 전신을 활 나름으로 뒤집었습니다. 손가락이 항문을 관통하여 직격한 전립선이, 1000배의 감도로 격렬한 뒤 돌고, 척수를 전해 뇌를 쾌락의 탁류로 칠해 갑니다.

운명의 **10** 카운트

윤아는 크레스트 도망가지 않는다항문에 손가락을 깊게 찔린 채, 그의 반응을 일절 자비없이 즐겁게 카운트를 새기 시작했다.
1000배로 튀어 올라온 감도는 그녀가 입술을 움직이는 경미한 공기의 미동조차도 크레스트의 뇌수를 직접 전격으로 굽는 것 같은 미친 쾌감에 느껴진다.

「10.....차분히 귀여워 준다. "
「9...
「8.....」

윤아가 손가락 끝을「구뿌리」라고 밀어 넣는다. 1000배의 감도는 그 경미한 진공을 배 안쪽에서 뽑아내는 격통과 그것을 덮어쓰는 새하얀 쾌감으로 바꾼다.

「7...
「6.....」

크레스트의 목이 사로잡혀, 목소리가 되지 않는 비명이 공기를 떨게 한다. 손가락이 내벽을 긁을 때마다 그의 척수를 지나 뇌천까지 흔들림이 뚫린다.

「5...

크레스트의 시야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되어 입에서 뺨이 늘어져, 사고는「엉덩이가, 항문 속이 기분 좋다」라고 하는 1점만에 지배되어 간다.
필사적으로 세우고 있던 이성의 방벽은 윤아가 손가락을「그리...
크레스트의고양이 귀더 이상 통제를 잃고 격렬하게 움직이고 길고 유연합니다.꼬리는 바닥을 무의미하게 두드리고, 절망적인 거절과 미미한 기대를 번갈아 드러내고 있다.

「4.....」

「아, 아아, 아아아아아아...

윤아의 손가락 끝은 더 이상 그에게 도망가는 것을 용서하지 않는다.

「3.....누출되어 있어.

「2.....」

윤아의 손가락이 가장 과민해진 항문을 '토쿤, 토쿤'과 마법의 맥동으로 두드린다.
크레스트는 더 이상 경련할 수밖에 없었고, 단지 끝을, 혹은 추가 파괴를 기다리는 것만이었다.

「1.....」

마지막 밀어.

구구구구!!

윤아의 손가락이 한층 더 안쪽으로 뿌리까지 묻혀…

『제로』. …… 끝내! "

절정, 그리고 종국

10 카운트와 동시에, 크레스트의 작은 성기로부터 뜨거운 분류가 폭발적으로 분출했다.

「아… …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남성기를 한 번도 만지지 않고 단지 엉덩이에 1점 공격만으로, 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맛본 적이 없는, 의식이 먼 정도의 사정을 강제된 것이다.
너무 자극에 척추가 초승달처럼 활 나름대로 뒤집어,헤어땀으로 적시면서,
크레스트는 영혼을 내뿜는 절규를 계속 올렸다.

「… … 대단해. 이봐, 크레스트?너의 항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꽉 끼고 있어. 사정시 항문율동이라고 하는 거야. 내 손가락을 씹으려고 하는 것 같아…」

윤아는 황홀한 표정으로, 크레스트 내부의 수축을 손끝에서 차분히 만끽했다.
승리의 열기로 미묘하게 흔들린다복숭아 색 오프 숄더 블라우스들여다 보는 흰 어깨 밑에는 포식자의 향기가 감돌고 있다.
그리고, 크레스트의 신체가 쾌감의 여운으로 가쿠가쿠와 떨리고, 완전히 탈력한 것을 견계해——.

즈뽀!!!

「히, 아우… … 아, 아 아아…

힘차게 손가락을 벗어나자, 크레스트는 힘없이 바닥에 무너지고, 짐승 같은, 혹은 깨진 악기와 같은 윤기있는 목소리를 흘려서 기절했다.

「군군…

윤아는 크레스트의 항문에서 뽑은 손가락의 냄새를 맡는다.

「크레스트의 똥의 냄새, 할게…

「아구… … 니…

항문이 천천히 기분 좋게 가려지는 강초 여운에 잠기는 크레스트.
이것이 이 후의 5000배, 그리고 10000배…

"수고하셨어요, 크레스트. 네 잃어버려.

황혼의 연습장에, 윤아의 밝고, 그리고 잔인한 웃음만이 차가운 정적을 찢어 울려 퍼졌다.

크레스트는 하얀 눈을 벗기고, 손가락을 뺀 여운으로 빅빅과 몸을 튀게 하고 있었습니다만, 유나의 분노와 유희는 맞지 않습니다.

"도망치려고 한 뒤, 1000배는 허터리까지 휘두르고…

윤아는 허탈 상태의 크레스트의 가는 다리를 잡고 다시 끌어당기면, 저항할 수 없는 그의 신체에, 학원의 금기에 가까운「중층 마법」을 잇달아 새겨 갔습니다.

중층 처치 마법**:**십 연쇄**(**데카･체인**)**

1. **【**강제 배뇨 유발**】**: 방광을 직접 자극하고 실금의 굴욕을 영속시킨다.
2. **【**괄약근 부전**】**: 엉덩이의 조임을 강제로 풀고 항상 이물질을 수용하기 쉬운 상태로 고정한다.
3. **[**점막 과민증**]**: 직장내의 점막을, 바람조차 격통과 쾌감으로 바꿀 정도로 과민하게 한다.
4. **【**수치심 증폭**】**: 이성만 선명하게 남겨 받고 있는 굴욕을 10배 진하게 인식시킨다.
5. **[**강제 마법 주기**]**: 크레스트의 마력을 모두 '성감'으로 계속 바꾸고 스태미나 끊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6. **【**발한**(**미약 성분들이**)】**: 자신의 땀조차도 자신을 흥분시키는 독으로 바꾼다.
7. **【**감각 공유**】**: 윤아가 크레스트의 피부에 접한 '즐거움'이 크레스트에는 '폭력적 쾌감'으로 전해진다.
8. **【**시간 감각 신장**】**: 1초의 절정을 뇌에서 1분간 늘린다.
9. **【**절정 금지**(**치수 정지**)】**: 윤아가 용서할 때까지 사정 순간의 고통을 유지한다.
10. **【**감도 **5000**배**】**: 모든 마법의 기반. 손가락 하나의 접촉이 핵폭발급의 쾌락으로 변모한다.

나락의 절정

「히, 아…

마법이 완성된 순간, 크레스트의 세계는 일변했습니다. 바닥에 닿는 유니폼 패브릭조차 수천 그루의 바늘로 엉덩이를 휘젓는 듯한 미친 자극으로 바뀝니다.

「이봐, 봐. 감도 5000배야? 지금의 크레스트라면, 내 한숨이 걸리는 것만으로… 윤아가 크레스트의 귓가에「후우」라고 숨을 불어 넣으면, 크레스트는「히잇!」라고 비명을 지르고, 전신의 근섬유가 천절할 정도로 경직했습니다.

비키비킷**……!**

육체가 삐걱 거리는 소리가 조용히 돌아온 연습장에 허무하게 울립니다.

「자, 처치의 마무리. 다음은 도망칠 수 없도록, 제가 제일 좋아하는 포즈로 고정해 준다. … … 엉덩이를 높이 돌출해, 자신의 손으로 펼쳐.

크레스트는 눈물과 삐걱 거리는 얼굴로 5000 배의 감도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스스로고양이 귀을 격렬하게 픽업시켜 수치스럽게 번민하면서 스스로의 엉덩이를 나누어 열었습니다.

「아하하, 좋은 아이! 그럼, 이번엔 손가락이 아니어서…

윤아가 꺼낸 것은 훈련용의 경질인 마도 지팡이.
그것이 크레스트의 항문에 밀어 붙는 것을 상상해, 크레스트는 너무의 공포와 기대, 그리고 5000배의 쾌감의 탁류에, 그보라색 눈동자을 촉촉하게 하면서, 의식을 완전하게 「공략」되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크레스트의 '완전 패배'와 '육체 개발' 기록

「…

포이.

윤아는 마도 지팡이를 던져 다시 양손의 집게 손가락을 굳게, 틈없이 조립했습니다.
감도 5000배라고 하는, 생물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 마법을 걸린 크레스트에 있어서, 그 손가락이 다가오는 것만으로 전신의 모공이 거꾸로 내장이 솟아오르는 것 같은 미친 예감에 습격당합니다.

「히, 아……아, 아아아아아! 아니…

크레스트는 자신의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펼쳐진 채, 눈물과 삐걱 거리는 얼굴을 엉망으로 목을 흔든다.
하지만 도주를 시도한 「비겁한 소년」에 대한 보상은 한심한 용서 없이 집행되는 것입니다.

궁극 집행: 감도 **5000**배의 '강초'

윤아가 날카롭게 발을 디디고, 크레스트의 가장 무방비인 항문에, 전마력을 담은 손가락 끝을 뚫고 있습니다!

「도망치려고 하는 처벌이야…『강초!!』」

즈보워!!!

"하훗이 좋다 좋은 좋은 좋은 좋은!?!?!?!?!?!?!?!?"

크레스트의 절규가 연습장의 천장을 뚫었습니다.
손가락이 침입하는 순간,「즈보!」라는 무거운 충격이 배 깊게까지 달려나, 5000배의 감도가 그 충격을 「영혼을 굽을 정도의 쾌락」으로 한순간에 두드려진다.

너무 많은 충격에 크레스트의 척추「미시미시…라고 비명을 지르고, 활 나름대로 되돌아갔습니다.

손끝이 직격한 전립선은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하지 않을 정도로 격렬하게 떨고, 크레스트의 뇌내를 새하얀 쾌락의 탁류로 가득 채워 갑니다.

기절의 **10** 카운트

윤아는 찌르는 손가락을 한층 더 깊게 나사 넣고, 크레스트의 내부가 5000배의 마법으로 도로도로에 녹아가는 감촉을 즐기면서 카운트를 시작합니다.

- **10.....**「자, 도망친 처치. 듬뿍 『교육』 해 줄게…
- **9.....**「아, 아가.....가하아…
- **8.....**손가락이 직격한 항문에서 5000배로 증폭된 '열'이 번개처럼 전신의 신경을 굽는다. 크레스트의 시야는 하얗게 물들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쾌락의 폭력에 의해 용서되지 않습니다.
- **7.....** "굉장해 크레스트, 배의 껍질이 내 손가락의 형태로 떠오르고 있다…
- **6.....**크레스트의 목에서 흠흠과 한심한 공기가 새는 소리가 새는다. 괄약근은 완전히 무력화되어 윤아의 손가락을 조이는 것조차 할 수 없고, 단지 유진되는 대로 떨린다.
- **5.....** 손가락 끝이 점막을 찢을 때마다, 크레스트의 허리가 허벅지와 부서진 것처럼 튀어 넘치는 꿀로 손가락이 미끄러집니다.
- **4.....**「히, 깡패, 아아아아아아아… 5000배의 감도는, 손가락의 표면의 약간의 요철조차도 송곳니처럼 느끼게 해, 크레스트의 내부를 즈타즈타에 꺾어 돌려 간다.
- **3.....**「봐, 크레스트의 여기… … 이제 한계를 넘어, 폭발할 것 같아?」
- **2.....**의식의 단편이 쾌락의 탁류에 삼켜져 사라져 간다. 자신이나 윤아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 마법의 손가락이 가져오는 지옥 같은 기쁨만이 이 세계의 모든 것이 된다.
- **1.....**

「..... 제로!

종말 : **5000**배의 절정

부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앗**! ! ! !**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크레스트의 가랑이에서 예전에 없을 정도의 뜨거운 분류가 폭발적으로 뿜어났다. 우선은 정액이 불어, 사정이 끝나면 소변이 불어 나오고, 소변이 끝나면 또 정액이 분출했다.
5000배의 감도에 의해 인출된 절정은, 1초가 1분에 느껴지는 마법의 효과도 함께, 영원히 계속되는 것 같은 극한의 쾌락이 되어 그를 덮쳤다.

「… … 하아, 하아…크레스트의 항문**,** 내 손가락을 삼키려고**,** 대단한 힘으로 히쿠히쿠 수축하고 있다**…** 1000배 때보다 계속, 훨씬 뜨겁고 조임이 강해… "

윤아는 황홀한 표정으로, 크레스트 내부가 절정의 여운으로 물결치는 것을 손끝에서 차분히 즐겼다.
그리고, 크레스트가 더 이상 손가락 1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끝, 영혼이 빠져나온 듯한 그 순간——.

즈포워웡**!!!**

「히아, 좋다 いい 좋은 좋다.....！！！」

힘차게 손가락을 빼면, 크레스트는 깨진 인형처럼 바닥에 무너져 떨어지고, 목의 안쪽에서 사로잡힌 듯한 헐떡임을 계속 흘렸다.

「아하하! 도망가려고 했던 벌, 제대로 받았어.

무너진 크레스트의 귓가에서 윤아의 밝고 잔인한 목소리가 다음 '교육'을 말하는 것이었다.

크레스트는 윤아의 소유물(장난감)으로서 완전하게「최적화」되었습니다.

"크레스트, 너가 아까 '상한 없이 좋다'고 말했어? 잊지 않아?"

윤아의 눈동자에는 이론을 넘은 광기적인 유희가 머물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크레스트의 얇은 허리를 더욱 강하게 억제하고 도망길을 완전히 막는다.
5000배라는 미답의 쾌감에 뇌를 태우고, 눈물을 흘리며 헐떡이는 크레스트의 귓가에, 그녀는 사형 선고에도 같은 추가 마법을 짜냈다.

「상한 없음... ... 그럼, 약속대로『감도 **10000**배 강초』에 가자. 크레스트의 그 귀여운 엉덩이가 얼마나 어색해지는지 시험해 보자」

크레스트의 전신이 공포로 덜컹 거리다.
10000배라는 배율은 더 이상 존재 그 자체가 쾌락이라는 폭력에 의해 소멸할 수 있는 수치.
그는「히, 아.....아...

【제2장:감도 10,000배와 글리세린 관장에 의한 편의 책임】

「가자...『강초**!!**』」

즈보**!!!**

「기이이이이좋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손가락이 침입한 순간 세계가 튀었다.
「즈보**!**」라고 하는 충격파가**, 10000**배의 감도에 의해 크레스트의 신경을 **1**개 남기지 않고 굽는 것 같은 초절적인 쾌감으로 변모한다**.**
크레스트의 배의 안쪽까지 충격이 달려, 그의 화려한 신체는 한계를 넘어 뒤집어,「미시미시…그리고 뼈와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실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절망의 **10** 카운트 **(1**씩 새겨진 영원**)**

윤아는 손가락을 찔린 채 도망가지 않는 크레스트 내부를 유린하면서 천천히 잔혹하게 카운트를 새기 시작한다.

- 「**10……**」「아, 아가… …
- 「**9……**」감도 10000배의 점막을 손가락이 흘릴 때마다, 크레스트는 목을 찌그러뜨린 것 같은 비명을 흘리고 있다.
- 「**8……**」"이봐, 크레스트의 항문, 너무 뜨거워서 내 손가락이 녹아버릴 것 같아"
- 「**7……**」손가락 끝이 전립선을 직격하고 거기에서 척수를 통해 뇌에 '쾌락의 낙뢰'가 계속 떨어진다.
- 「**6……**」수치심이 강해야 하는 크레스트가 너무 쾌감에 무심코 허리를 흔들며 윤아의 강초손가락을 찾아 버린다.
- 「**5……**」「아하하, 자신으로부터 조여 버려.
- 「**4……**」크레스트의 가랑이에서는 만지지도 않지만 선행이 멈추지 않고 넘쳐 바닥을 더럽혀 간다.
- 「**3……**」의식이 멀고 크레스트의 정신은 새하얀 빛의 바다로 녹아 나간다.
- 「**2……**」**1**초가 **1**분에 느껴지는 마법의 효과로, 절정 직전의 지옥이 영원과 같이 늘어난다.
- 「**1……**」「자, 크레스트의 전부…

제로의 순간 **:** 글리세린 폭발

「『제로』**! !**」

그 순간, 찔린 윤아의 손가락 끝에서, 고점도의마도 글리세린가 폭발적인 기세로 발사되었다.